

도난방범설비에도 FILK 품질인증 반영 - 한국셉테드학회와 협약 체결 -



KFPA는 4월 18일(금)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방재시험연구원에서 4월 18일(금)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방재시험연구원에서 한국셉테드(CPTED)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가 적용된 대상물에 설치되는 도난방범감지기, CCTV, 도어록, 방범문, 금고 등의 도난방범설비에 대해 방재시험연구원의 성능시험 및 「FILK 품질인증」을 반영하고, 관련기준을 개발하며 지속적인 인증 확산을 위해 공동홍보하기로 했다.

방재시험연구원의 「FILK 품질인증」은 국내·외 방화 및 안전제품에 대하여 국제수준의 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 및 성능과 품질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방화제품에 대하여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서, FILK 인증마크를 획득한 소방제품을 건물에 설치할 경우 화재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도시범피 발생 우려지역을 건축설계 또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차단하여 범죄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설계로서, 올해 12월부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등에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

윤진호 방재시험연구원장은 “범죄를 줄이고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문적, 산업기술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설립된 한국셉테드학회와 협약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학·연 양 기관이 오늘 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가 적용된 대상물에 도난방범설비에 대한 FILK 시험성능 및 품질

인증 반영을 통하여 국가사회의 화재 및 범죄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KFPA, 국세청 직원 화재예방교육 - 화재예방교육 문의·요청 쇄도 -

KFPA는 5월 22일 국세청 및 서울청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국세청 본청건물에서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세청 직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세청장 지시 하에 마련되었다.

교육내용은 화재원인 및 대책, 화재 시 피난 등 대처요령, 안전생활수칙 등의 이론교육과 함께 소화기 사용법 등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KFPA의 화재예방교육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실제적인 대피훈련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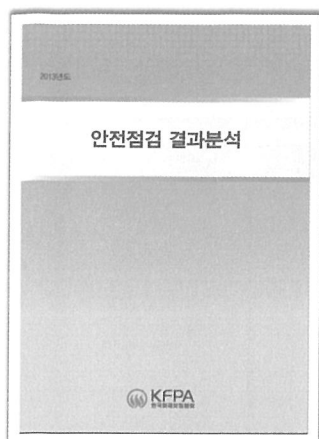


「2013년 특수건물 안전점검 결과분석」 자료 발간

KFPA는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의 11층 이상 건물 및 3,000㎡ 이상의 공장 등 특수건물 중 점검을 실시한 27,698건에 대해 안전점검 내용을 종합 분석한 자료를 지난 4월 발간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특수건물 방화시설의 양호율은 평균 81.1%로서, 전년(81.3%) 대비 0.2%p 감소하였으나, 10년 전인 2004년(76.2%)과 비교해 볼 때 4.9%p나 증가하는 등 중대형 건축물의 화재관리 상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EWS



양호율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10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하였을 때 90점 이상에 속한 비율로서, 양호율이 높을수록 '방화시설이 적절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 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방화시설별 양호율은 소화활동설비(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등)가 98.7%로 가장 높으며, 연소확대 방지시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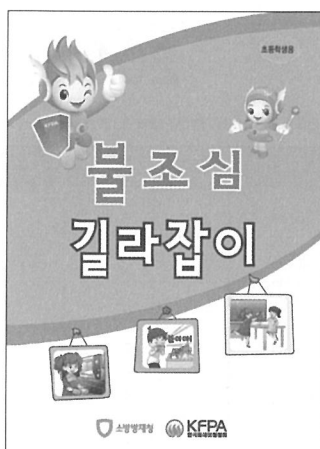
방화관리 부문은 각각 56.7%, 41.4%로 낮게 나타났다. 연소확대 방지시설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이 설계·시공 시 적절하게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건물의 용도 변경 등으로 방화구획을 훼손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 방화구획 유지 관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양호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화관리 양호율이 전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낮는데, 이는 건물관계자의 화재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방재교육 및 정기적인 방재훈련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특수건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만큼 유사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특수건물 안전점검 후 건물별로 통보하는 위험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화재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등 자발적·적극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면, 위험에 대한 대비는 물론 화재보험료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전했다.

『제14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참여학급 작년보다 많아

KFPA는 어린이 화재안전을 위해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4회 불조심 어린이마당』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6월 2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646개 학급 16,802명이 참가를 신청하였다.

교육부 및 10개 손해보험회사가 후원하고 KFPA와 소방방재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에 참가하는 학생 전



원에게는 화재 및 재난 안전과 예방에 관한 어린이 학습용 만화교재인 “불조심 길라잡이”가 제공된다.

참가 학생들은 이들 교재로 선생님과 함께 약 두 달간 자율적으로 학습한 후 9월 17일 지역평가시험을 치르게 되며, 이중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18개의 시·도별 최우수 학급을 대상으로 10월 6일 전국평가를 실시, 학급 평균에 의해 최종 수상학급을 결정

하고 10월 24일 전국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상 1개 학급에는 교육부 장관상 및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2개 학급에는 소방방재청장상과 상금 80만원, ▲우수상 5개 학급에게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상과 상금 60만원, ▲불조심어린이상 10개 학급에게는 손해보험회사 대표이사상과 함께 상금 40만원이 수여된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해당학급의 지도교사 8명에게도 교육부장관상(1명), 소방방재청장상(2명), KFPA 이사장상(5명)과 함께 부상이 수여된다.

KFPA 관계자는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처럼, 어릴 적에 배운 화재 및 자연재해에 관한 지식은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안전을 생활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며,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가 어린이들이 화재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의 안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뿐만 아니라 어린이 화재예방교육, 안전캠프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997년부터 시작된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는 작년 13회 행사까지 총 4,858개 학급 151,306명이 참가하였다.

